

'토마토빨나방' 초기 집중 관리·영농지도 추진

농진청, 전국 단위 토마토빨나방 분포 조사 추가 실시... 발견 농가 방제 독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시설 토마토 가을 작기가 시작됨에 따라 '토마토빨나방'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집중 관리와 영농지도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10월 21일부터 3주간 전국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빨나방 예방과 방제법 등을 교육한다. 해충 특성과 피해양상, 성충 유입 방지 시설 관리, 해충 발견 시 관리 방법

등을 홍보해 영농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전국 단위 토마토빨나방 개체 분포조사를 벌여 시군별 발생 현황과 밀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 중 토마토빨나방이 발견되면, 농가 현장 지도를 실시, 즉각 방제한다. 앞서 지난 9월까지 총 4차에 걸쳐 토마토빨나방 개체 분포조사를 진행했고, 약제 방제를 완료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토마토빨

나방의 국내 유행 여부 확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토마토빨나방은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자리면서 줄기, 과실 등 식물체 조직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작물을 가해한다. 제때 방제하지 못해 유충 발생 밀도가 높아지면, 피해가 매우 커지므로 작기 시작 전과 초기에 집중 예방과 방제가 중요하다.

예찰 트랩과 끈끈이트랩 등을 활용해 토마토빨나방 발생 여부를 주기적

으로 살피고, 발견 즉시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약제 방제한다. 약제를 쓸 수 없는 친환경 재배 농가는 방충망(1.6mm 미만)을 설치하고 재배 초기부터 교미교란제와 유기농업자재 등을 병행해 방제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농가에서는 토마토빨나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삼기(정식) 초기에 예방과 방제에 힘쓰고 해충을 발견한 농가는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한 후 예찰·방제 관련 영농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개공, 건설현장 골조공사 품질관리 '이상 무'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최근 익산 부성지구 B블록 공공분양주택 및 김제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기관 품질시험을 한 결과(9월 24일~28일)를 통보 받았다.

이번에 실시한 품질시험은 외부 전문기관(국토교통부 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업체)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시험 실시로 추진 중인 건설 현장의 골조공사 진행에 따라 구조체의 압축강도 및 철근 배근 상태를 조사해 구조체의 안전성 및 품질의 균질성 등이 설계도서와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외부 전문기관 품질시험을 통해 건설 중인 현장에 대해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건설 현장 관계자 안전 교육 실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2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다가오는 겨울에 따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현장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 2호 출자 협약식

전북리빙비즈클럽 등 선배 벤처기업, 지역 유망 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22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김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북리빙비즈클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 2호 출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투자 협약식을 가진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 2호는 전북의 선배 벤처기업들이 지역 내 유망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총 11억원(GP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1억원, LP 개인투자자 9.9억원)의 규모로 결정되었다.

지난 7월 1차 협약식에서는 전북리빙비즈클럽 임원진이 주도로 3명(6구좌)에 대한 투자협약이 이루어졌고, 금번 2차 협약식에는 (유)AM특강 윤홍식 대표, (주)바이오엔진 김일 대표, (주)에코팜 강병욱 대표, (주)신인어페럴 박연옥 대표 (유)아이케이 이희천 대

표, (주)디스 조주현 대표 등 6명(7구좌)의 추가출자로 총 2539만원을 달성하여 목표금액인 11억원에 조금씩 순항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2차 협약에는 전북리빙비즈클럽 회원 8명이 대거 참여하면서 전북 창업 벤처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동시에 전북지역 창업생태계 전반에 투자 촉진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리빙비즈클럽은 형우생(효진산업 대표) 회장 등 25명의 전북소재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된 클럽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정책자문, 네트워킹 및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선배기업들의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후배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중기청 안태용 청장은 "올해에만 벌써 2번째 협약식이 개최되고 전북리빙비즈클럽 주도로 투자하는 선배기업이 증가하면서 목표금액을 향하여 순항하고 있는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선배기업들의 재원이 모여 지역 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북중기청은 스타트업 IP의 단계별 육성 체계 마련 및 지역 주요 GR&엔젤투자협회, VC협회 등과 협업하여 투자자 발굴을 통해 벤처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북리빙비즈클럽 형우생 회장은 "금번 추가 출자로 우리 클럽이 유망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데 조금만 한 힘이라도 기여하게 생각한다. 또한, 우리 선배 기업인들의 모임이 지역사회에서 후배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후원자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예비취업자를 위한 채용 연계 지원 프로그램인 '식품 품질관리사 양성과정(단기)'의 발대식을 지난 21일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개최하고 11월 1일까지 2주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교육은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내 농식품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바이오식품과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직업 훈련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젊은 인재의 정주 촉진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커리큘럼은 제품 유형별 표시 기준 HACCP 7원칙 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실무 위주의 교육내용과 원활한 직장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매너, 워케이션 보고서 작성법 등 소양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생들이 취업 후 실제 업무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농식품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도내 우수 인재들이 도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JB 골든에이지' 출시·이벤트

전북은행, 시니어 고객 위한 통장·예금·적금 상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시니어 고객을 위한 JB골든에이지 통장과 예금·적금 상품 라뉴얼 출시 및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리뉴얼 상품은 시니어 고객들의 금융 생활 전반에서 보다 강화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리뉴얼된 JB골든에이지 통장은 100만원 이상의 잔액에 대해 최고 연 0.5%(기본 연 0.05%)금리에 연금예치 실적 또는 JB실버주책연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이 예금거래에 한하여 전자금융 이체와 CD/ATM 현금인출, 자동이체, 입출금내역 통지서비스, 제사고 신고 및 통장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 면제된다. 또한 6개월 이내 3회 이상 연금 입금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보상보험 서비스가 제공된다.

JB골든에이지 예금은 3백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며, 최고 연 3.4%(기본 연 2.8%) 금리가 제공된다.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2% 10만원 이상 JB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 연



0.2%,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연 0.1% 등 가입일 전전월 기준 실적에 따라 최고 0.6%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추가로 60세 이상 고객에게는 연 0.1%와 프로모 고객사랑 손자녀 케어 보험이 제공된다.

JB골든에이지 적금은 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가입이 가능하며, 6회 이상 정상 납부 시 프리미엄 고객사랑 레저플랜 보험 혜택과 최고 연 3.5%(기본 연 2.7%) 금리가 제공된다.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연 0.4% JB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 100만원 이상 연 0.2% 공과금 자동이체 연 0.1%는 적금 만기 전전월 말까지의 실적에 따라 제공되며, 60세 이상 고객에게 연 0.1%가 지급되어 최고 0.8%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이만호 기자

LX-서울시, 입체지적 활성화 '한 뜻'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 등 위한 업무협약

LX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어명소)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 환경조성 등 입체지적 활성화에 나섰다.

LX와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 및 입체지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와 서울시는 △입체지적 등록 및 활용 모델 개발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입체지적시스템 연계활동 지원 및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교육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LX는 이번 협약으로 지적측량 기술과 입체지적 등록관리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입체지적시스템을 서울시에 시범 운영을 하며 이로써 다양한 권리와 관계를 등록·관리하는 입체지적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LX는 입체적 관리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체지적시스템을 개발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입체지적시



스템 연계적용 및 실증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LX 윤한필 지적사업본부장은 "양 기관이 입체지적관리시스템의 안착과 활용 모델 구축, 법·제도적 정비 등에 협력해 입체 지적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